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탄력 받는다

‘KTX지역경제 거점형 투자 선도지구’ 선정

부지 협상·행정절차 등 국토부 조정 기대

광주시, 장록교 확장·주변 환경개선 추진

광주송정역이 ‘KTX 지역경제 거점형 투자 선도지구 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송정역 일원 64만6000여㎡에 2022년까지 7882억원(민자 6334억원, 국비 823억원, 지방비 685억원)을 들여 지역 특화산업시설을 조성,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다봤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은 2480억원이 투입돼 융복합 단지와 함께 ‘양대 축’ 역할을 할 복합환승센터다. 센터 건립사업은 그동안 부지 문제로 수년째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부지 소유자인 코레일과 철도공단 측이 민간사업자에게는 공개입찰 매각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광주시에 부지를 수의매각한 뒤 광주시가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관계기관들이 원직적인 합의를 했지만 아직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투자선도지구 선정은 문제 해결의 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는 계기가 마련돼 부지 협상은 물론 앞으로 행정절차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역 부근 교통난 해소책으로 구상 중인 인근 2차로 장록교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나 집창촌 주변 등 환경개선이 탄력을 받고 인근 군비행장 이전 후 조성예정인 ‘솔마루 시티’ 사업과의 연계도 시도할 계획이다. 시는 연말까지 투자선도지구 개발계획을 세워 국토교통부에 선도지구 지정신청을 한 뒤 2019년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남 진도 해양복합관광과 충북 영동 레인보우힐리타운 사업을 발전촉진형 투자선도지구로, 충남 홍성 내포첨단산업단지와 경남 김해시의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를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로, KTX 광주송정역을 KTX 지역경제 거점형 투자선도지구로 최근 선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일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콘텐츠진흥원 1층 빛가람홀에서 열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혁신지역위원장이 정리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제공>

“나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해야

공공기관 가족동반 이주율 높인다”

더민주 토론회서 주장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여건을 비롯한 정주여건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나주혁신지역위원회는 1일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콘텐츠진흥원 1층 빛가람홀에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정훈 더민주 나주혁신지역위원장과 강인규 나주시장, 지역주민과 당원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재)일생활균형재단 WLB연구소 백다래 책임연구원은 이날 ‘이전기관 구성원의 일·생활 균형실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대다수 공공기관 직원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업무량 증가와 열악한 정주여건, 사회적 관계 단절, 여가 활동의 감소 등으로 삶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백 연구원은 나주 혁신도시와 부산 혁신도시 등 양 지역 17개 이전기관 직원 622명(부산 230명·나주 392명)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및 여가시설·보육·

교통·교육 등 7개 부문에 대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는 특히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 직원 73.2%가 정주여건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부산 이전기관 응답자들은 15.4%가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했다”며 “정주여건을 개선해야만 가족동반 이주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 향상이나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혁신의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신상철 노동조합 위원장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선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혁신도시 주민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대변할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정리발언에서 “토론회에서 확인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주시 및 전남도와 정책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호남특보로서 중앙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문화협력·교류 방안 논의

한·남아시아 문화장관회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축으로 남아시아 국가와 대한민국간 문화협력·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남아시아 문화장관회의가 정례화된다. 제2회 한국·남아시아문화장관회의가 1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퍼런스홀에서 열렸다.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정관주 제1차관과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8개국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통한 한국과 남아시아지역 간의 문화예술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에 담겼다.

세부적으로 ▲국민 상호 간 이해 증진과 기관 간 교류 확대(한국·남아시아 문화제 개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협력 ▲장차 교류 및 공동 제작의 활성화 ▲문화장관회의 정례화 등을 합의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1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2회 한·남아시아 문화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와 남아시아 8개국 대표들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선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마리암 아즈라 아흐메드 몰디브 교육부 차관, 굴멧 칸 자드란 주한아프카니스탄 대사관 공사참사관, 악타리 맘타즈 방글라데시 문화부 차관, 리온포 다와 갈레 부탄 내무문화부 장관,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마니샤 구나세케라 주한스리랑카 대사, 키린 샤카 주한네팔 대리대사, 사프캇 질릴 파키스탄 정보방송국 가유산부 차관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의회 7대 후반기 의정활동 본격화

임시회 개최 … 市 ‘시금고 조례 개정안’ 수정 요구 결과 주목

광주시의회가 1일 제251회 임시회 개최식을 시작으로 제7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부터 7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광주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한다.

지난달 8~22일 7대 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 상당 기간을 의장 선출 등 지도부 구성으로 허비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신임

지도부 출범 후 첫 회기인 셈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의회가 이전 회기에서 줄줄이 보류했던 ▲시금고 조례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전일발딩 활용계획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대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행정자치부 예규 개정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시 금고 조례 개정은 금고 선정에 영향을 주는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새로 넣거나 삭제 또는 조정해 연말 새 금고 운

영기관 선정을 놓고 은행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가 이날 ‘시금고 조례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시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 예정인 ‘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중 영업점 분포 평가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시는 금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관내 지점 수로 평가하는 현행 방식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영업점 분포 평가 기준을 관내에서 전국 영업점으로 확대해 지방은행의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원안 또는 수정 의결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정책자문관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호화 논란이 빚어진 사무공간을 준치할지, 폐쇄할지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이곳은 600만원이 넘는 TV 세트 등 호화시설을 갖춘 데다 이용자가 거의 없어 정책자문관 제 부작용의 상징적 공간으로 여겨졌지만 일부 의원은 폐쇄보다는 양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전일발딩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5·18 민주화운동 등 광주 현대사와 부침을 함께한 광주 동구 금남로 1번지 전일발딩 리모델링 사업에 필수적인 절차여서 심의결과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감사위, 138명 주의조치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통째로 베낀 공무원에 대해 무더기 주의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에서 국외정책연수 보고서 작성과 연수계획 수립 및 관리 등이 부적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와 개선 등의 조치를 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했다.

감사결과와 최근 5년간(2011~2015년) 해외연수를 다녀온 10개팀(138명)이 전임 기수나 다른 지자체의 연수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수는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중견간부 리더과정으로 대부분 유럽이나 지중

해, 미주 등을 10일 이상 일정으로 다녀왔다.

연수계획 수립과 관리 등에서 부적정한 행정행위도 드러났다. 3급 이상 간부가 포함된 연수는 시장 결재를 받아야 하지만 부시장 전결로 끝냈거나, 연수계획서도 연수지역과 기관 등 일반적인 내용만 담은 등 주먹구구식으로 작성해 지적됐다.

이밖에 특정국가나 관광지를 중복해 선정하거나 예산 범위를 초과한 연수비용을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연수 결과보고서 베끼기가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국가가 인정하고 지원하는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전남지역 어디든 무료출장

"불만족 100% 환불"

"울리지 않고 잡음 없이 깨끗한 소리 착한 보청기"

출장문의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